

■ 영화



OPPENHEIMER

-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 출연: 킬리언 머피(로버트 오펜하이머 역)
에밀리 블런트(캐서린 오펜하이머 역)
맷 데이먼(레슬리 그로브스 역)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루이스 스트라우스 역)
플로렌스 퓨진 태틀록 역)
조시 하트넷(어니스트 로렌스 역)
케이지 애플렉(보리스 파시 역)
케네스 브래너(닐스 보어 역)
- 러닝타임: 180분 ● 등급: R
- 개봉일: 2023년 7월 21일 ● 장르: 전기, 역사, 드라마

[줄거리]

1926년, 22세의 박사 과정 학생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실험 물리학자 패트릭 블랙킷 밑에서 공부하면서 항수병과 불안에 시달린다. 그는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장을 희망하며 미국으로 돌아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1942년, 레슬리 그로브스 미 육군 장군은 오펜하이머에게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하는데……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



■ 신간

그여름의서울



<그여름의 서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들이었던 은국과 밴드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이 당시 일상 속에 스며들어 미친 영향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인다. 좌익 활동에 매진하다 수배자가 되어 버린 학생, 극우 단체에 가입하여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상만, 손꼽히는 수재였다가 가혹한 운명에 휩쓸린 길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은국. 그들의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서로 양보할 수 없기에 멍멍하고 애달프게 다가온다. ('출판사 서평' 중에서)

■ 이현 지음 | 창비 펴냄 | 340쪽

Text로 주소 주시면 무료로 1 oz 샘플 보내드립니다(213-880-3027)



조미용
고운소금

세계적인 청정해역 남부 바하 캘리포니아산 저염 소금 50 lbs 100 포대 한정 판매합니다. \$250/50 파운드 팩

Prior to the 1950s, salt extraction in this area was small-scale and methods were rudimentary. In the 1950s, San Francisco ceased supplying salt to the US west coast paper industry and an alternative source of salt was needed. Daniel Ludwig (who would later build the famed Acapulco Princess Hotel) set up a company at the saline Ojo de Liebre coastal lagoon near Guerrero Negro in 1954; three years later, salt was exported to the USA for the first time. Ludwig sold the company in 1973. Exportadora de Sal (Salt Exporter) is now jointly owned by the Mexican government (51%) and the Japanese Mitsubishi corporation (49%).

주문 및 배송 문의: 213.880.3027 Kenneth Lee / 이 일